'착한 목자'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 作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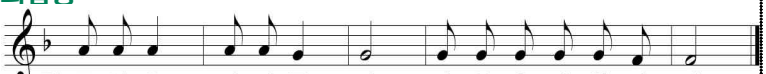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사도 2,14ㄱ.36-41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제2독서 | 1베드로 2,20ㄴ-25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음 | 요한 10,1-10

성가 입당성가 1 예물준비 18
영 성 체 177 파견성가 144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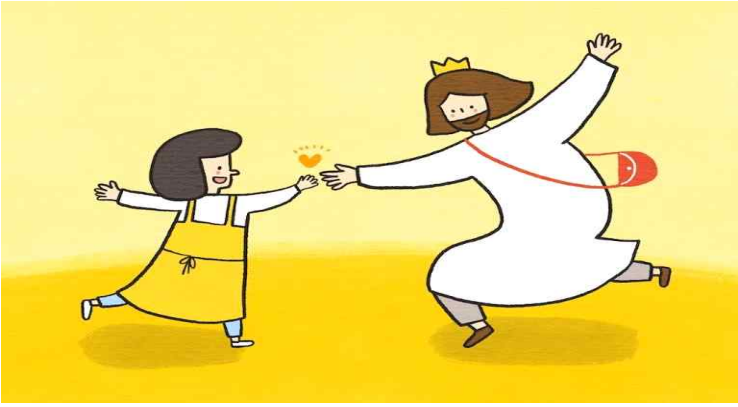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김춘원 베드로	린다 김
손요셉	김영빈 루시아
이크리스티나	김영빈 루시아
김학순	도미니카

생미사	봉헌
방상우 알렉시오 세례축하와 영육건강	김준연 펠릭스
김정호 세례축하	박크리샤
곽세나, 이혜선 세례축하	이지훈 아녜스
박형규 세례축하	익명
노영일, 곽세나 세례축하	임노엘 루카
이태주 세례축하	익명
김가롤로 신부, 김효주 수녀	모든 세례자
이지훈 아녜스, 김규헌 프란치스코	익명
정영시 스테파노, 박영순 아가다 건강	정다경 마리아
박충호 영육건강	도미니카
오현아 카타리나	희망의 모후 Pr.
돈 박 생신축하	이경자 율리안나
한서희 데레사 생일	박크리샤
민사룡 가브리엘, 민사현 베드로 영육건강	부모
서경자 율리아 영육건강	조성자 데레사
김진섭 야고보	우리즐거움의원천Pr.
이 앤드류, 이 끌로에	강혜숙 바울라
강종윤, 카일라	강혜숙 바울라
홍세현 에린 세라피나 첫영성체 축하	익명
민완준 필립보 영육건강	요셉회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매주 주일 11:00



▶세례성사 축하드립니다.

김혜선 마리소피아, 박형규 가브리엘, 이혜선 카타리나, 노영일 크리스토퍼, 곽세나 루치아, 방상우 알렉시오, 이태주 레오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견진성사(5/7)를 위한 대부모와의 모임

오늘(4/30) 11시

▶청년분과 야유회 & 바비큐

청년회, 학부모회, 성가정회등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일시:4/29(토)오전11시-오후4시,
장소: Roosevelt Island Park
참가비: RSVP $30, 당일 $35,
문의: 청년부분과장 김레이몬드 Tel: 408-206-8011
카톡: raymondbk 자세한 내용은 큐알 코드 신청서 참고해주세요

▶고해성사 부활시기, 4월 한달동안 고해성사 없습니다

▶나눔의 바자회 물품 기부

새옷 또는 새 물품으로 부탁드립니다. 5/20일까지 수녀님 사무실로
문의: 청년회장 양젬마 Tel:714-328-0386 카톡: Jcy258

▶2023 주보광고

주보에 사업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사후 다미안홀의 재무데스크 또는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신청비: $200

▶예수 성가정회(FYMMY)회장 및 회원모집

젊은 부부들이 주님안에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행복한 성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의지하는 모임입니다.
문의: 청년분과장 강토마스 310-413-1653 카톡: kangkenny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십니다. 문의: 이카타리나 646-696-4680

▶주일학교 교사모집

어린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장할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사무실

▶성경공부 (BIBLE ACADEMY 1학기) 일정

구약	매주일 1시	다미아노홀	김효주 수녀

▶미사전 성경봉독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세례성사

세례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며, 다른 성사들로 나아가는 길이다.

세례(洗禮)는 '물에 담그다', '물에 잠기게 하다', **'물로 씻는다'**는 뜻이 있다. 초기 교회에서는 물에 잠기었다가 나오는 예식이었지만, 점차 머리에 물을 붓는 예식으로 간소화됐다.

물로 '씻음'은 몸의 더러움을 없애고 마음을 정화시키고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 것을 의미한다. 물에 '잠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됨을 상징하는데, 물에서 나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된다. 물은 세례성사의 표징이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나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게 된다.

세례식 때 사제는 세례자의 이마에 물을 세 번 부으며, 또는 물에 잠기게 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하느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베풀어지는 세례성사는 세례받는 이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표지인 **인호**가 새겨진다. 그래서 세례성사는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취소될 수 없다.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는 또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 또한 이름도 새롭게 짓게 되는데 이를 **세례명**이라고 한다. 세례명은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성인이나, 그 외 '노엘', '임마누엘', '그라시아'처럼 그리스도교의 신비나 덕을 나타내는 이름으로도 정할 수 있다.

사제는 대부모를 통해 파스카 초에서 당겨온 촛불을 세례자에게 나누어 주고, 끝까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당부한다. 이 촛불은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한다. 이 촛불을 건네준 **대부모**들은 새 신자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을 지니게 된다.

세례성사는 주교나 신부, 또는 부제가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평신도와 비신자라도 가톨릭교회의 뜻을 따를 지향이 있다면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다. 다만 이때는 교회가 정한 양식을 따라야 한다. 세례받을 사람의 이마에 자연수를 부으며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선언한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 주는 세례를 **대세(代洗)**라 한다.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걸까?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로마 6,4) 아멘.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4월 30일	이영노 율리안나	정은철 프란치스코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이영혜 안젤라	한서희 데레사 최예준 사도요한
5월 7일	이영노 율리안나	민완준 필립보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유정옥 유스티나	-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가지치기

성경은 말합니다.
시련, 고통은 일종의 단련이고
이 단련을 통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주어진다고.

농부가 나무의 가지를 칩니다.
애지중지 키운 나무이지만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
불필요한 가지를 끊어냅니다.

나무를 보며 신앙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나의 구원과 이웃을 위해 내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